



헤르만 헤세:인간 헤세와 그의 문학세계

저자 이인웅
(Authors)

출처 [외국문학](#) , (39), 1994.5, 253-267 (15 pages)
(Source)

발행처 [열음사](#)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57702>

APA Style 이인웅 (1994). 헤르만 헤세:인간 헤세와 그의 문학세계. 외국문학, (39), 253-267.

이용정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Accessed) 165.***.117.111
2017/11/07 17: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르만 헤세: 인간 헤세와 그의 문학세계

이인웅

외국어대학교수 독문학

1. 현대의 정신적 사부(師父)

이상야릇하게도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는 현대문명의 아웃사이더들인 히피에 의해 그들의 사도(使徒)로 숭배되면서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며 놀랄 만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 50년대 후반기부터 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독일 작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예사가들 사이에도 그의 생애와 작품 및 사상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헤세 붐’ 또는 ‘헤세 선풍’이 불기 시작했다. ‘히피들 사이의 성(聖) 헤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미국의 대학 캠퍼스 주변에는 헤세 작품의 이름을 빌린 대학생 술집이 무수히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 예를 들면 ‘마술 극장집’, ‘데미안 지하술집’, ‘싯다르타 주점’ 등이다. 역시 헤세 작품의 제목을 딴 다방에 가면 맨하탄의 ‘유리알 유희’ 의류 점포에서 산 듯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몰려 있고, 그들은 로큰롤 그룹의 도취시키는 듯한 ‘황야의 이리’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했다. 50년대와 60년대의 헤세 문화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침범해 들어올 수 없는 젊은이들만의 신비주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

소위 ‘후기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룹의 성서(聖書)가 된 『황야의 이리』와 『싯다르타』가 스크린에 담겨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고, 오늘날까지 헤세라는 작가의 이름이 붙은 책이 4천만 권 이상이나 팔렸다고 한다. 그중에서 독일어로 된 책이 6분의 1정도라면 얼마만큼 타국(他國)의 독자들이 그의 글을 즐겨 읽었는가 하

는 점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는 물론 중고등학교 수업에까지 헤세가 수용되면서 거센 헤세 선풍도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시대의 병과 위기를 고발하면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내면(內面)으로의 길’을 통한 자아 해방과 새로운 생활 감정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헤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신적 사부(師父)’ 또는 ‘현시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작가로서의 가장 큰 영광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현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헤세의 인생 여정은 결코 안이하다거나 평탄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난과 병고(病苦), 고독과 절망, 위기와 시련, 좌절과 배반, 실패와 자살충동 등으로 가득했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2. 전생(前生)과 혈통

“내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이전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된다. 가능만 하다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소년 시절의 초기에까지는 물론, 그것도 지나서 내 조상의 아득한 옛날까지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싱클레어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다룬 『데미안』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헤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득한 옛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이나 예감, 유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 등이 그의 창작이나 사상면에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월요일의 파스한 저녁시간에 남부 독일의 나골드 Nagold 강변에 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작은 도시 칼브Calw에서 파란 눈을 가진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의 전생(前生), 즉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본향(本鄉)이 유럽이 아니라 저 멀리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중(山中)’이라는 예감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작가의 예감을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언젠가 작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프랑스의 여자 예언가가 헤르만 헤세를 관찰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유럽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전생에서의 당신은 히말라야 산중에 사는 은둔자였습니다. 뾰족뾰족한 암벽들 사이에서 고독한 삶을 영위하며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푸른 목장을 좋아했습니다.”라고.

우선 작가의 혈통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애당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경건주의적이고 국제적이며’ 동시에 ‘충분히 이국풍(異國風)인’ 특성으로 충만해 있다. 즉 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Johannes Hesse)는 러시아 국적을 소유하고 에스토니아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추밀원 고문관으로 있던 작가의 할아버지 카를 헤르만 헤세 박사의 아들로서 역시 러시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났다. 여기서부터 요한네스는 잠시나마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사 생활을 한 후, 독일로 와서 칼브 출판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인도와 중국의 철학 및 정신 세계에 몰두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들인 헤르만에게 동양, 특히 중국의 지혜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주었다. 그리고 작가의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Marie Gundert)는 선교사이며 저명한 인도어문학자였던 헤르만 군데르트 박사의 딸로서 동인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이며 작가의 외할아버지인 군데르트 박사는 헤세에게 무엇보다도 인도의 지혜와 사상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결국 헤르만 헤세는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결합하게 된 발트의 독일 혈통인 헤세 가(家)와 슈바벤 출신인 군데르트 가(家)의 두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양친의 선조들로부터 이미 동서양적 인자(因子)를 상속 받은 헤세는 어릴 때부터 서양의 문물과 더불어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다. 교양이 높던 양친의 집에서는 『성경』과 더불어 서양정신은 물론 『불경』과 『노자』를 알고 있었고, 옷장·상자·유리그릇·옷감·우상(偶像)의 그림 등 수많은 이국적 동양 문화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므로 헤세는 “훗날 인도와 중국의 현인들과 만나게 된 것을 재회(再會)로서, 귀향으로서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다.

3. 방황과 고뇌의 일생

내면과 외면에 이국적인 요소를 함께 지닌 헤세는 스위스의 바젤에서 어린 시절을 지낸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그 생활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자 그는 벌써 그곳을 탈출하게 되는데, 훗날 고백하고 있듯이 “시인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선 그는 정신이상인 것으로 간주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고, 연상의 여인에 대한 사춘기적인 정열적 사랑의 고민으로

인해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나지움에 입학했으나 그것도 견디내지를 못했고,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술집을 전전하며 지속적인 두통을 앓았다.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고 다음에는 서점의 점원으로, 출판협회의 조수로, 탐시계 공장의 견습공 등으로 소년 시절을 불안과 절망 속에 헤매었다. 튀빙겐과 바젤에서 다시금 서점의 점원으로, 다음에는 서적 분류 조수로 일을 하면서 그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얻고 괴테를 중심으로 한 문학과 정신사를 탐독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시집 『낭만의 노래』와 산문집 『한밤중 후의 한 시간』, 『야상곡(夜想曲)』, 등을 발표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1904년에 교양소설 『페터 카멘친트』를 책으로 출판하면서 일약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 후에 헤세는 9살이나 나이가 많은 마리아 베르놀리 Maria Bernoulli와 결혼하여 보덴 호수 근방의 조용한 시골 기이엔호펜으로 거처를 옮겨 자연과 더불어 자유 작가로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였다.

외면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헤세는 계속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1911년에는 더 이상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순수한 내면적 욕구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동방의 나라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만물이 시초를 이루고 모든 현상의 영원한 단일(單一)을 의미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여행이었으나, 현대화해 가는 인도로 부터 그는 많은 실망을 느끼고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 스위스의 베른 근교로 이사를 하여 창작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 동안에 <독일 포로 후생사업소>에 근무하며 전쟁포로들을 위한 사회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프랑스의 작가 로망 롤랑과 친교를 맺고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며 반전(反戰) 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치적·군사적 사건으로 인해 온갖 분노와 근심에 휩쓸렸던 작가는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심각한 존재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또한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발병, 부인의 정신질환과 요양소에서의 치료 등은 작가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지 못했던 헤세 자신까지도 정신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헤세는 독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민이요 작가가 되었다. 일부의 신문들은 그를 “절조가 없는 인간” 또는 “조국의 배반자”라고까지 낙인을 찍었으며, 작가는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다. 나치의

집요한 추적을 견디내지 못하고 1919년 5월 그는 부인을 요양소로 보내고 자식들을 친구와 친척에게 맡기고서 스위스의 남부 루가노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 몬타놀라 Montagnola로 들어갔다. 대신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수채화를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도 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지만, 다시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불안에 떨며 스위스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헤세는 결국 1923년 여름에 첫번째 부인과 정식 이혼을 하고, 동시에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이미 어린아이였을 때 소유했었던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이듬해에 헤세는 47세의 나이로 20살 연하의 어린 성악가 루트 뱅거 Ruth Wenger와 두 번째 결혼을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다시 별거생활을 시작했으며, 1927년 봄 부인의 청에 따라 법적인 이혼을 하였다.

경제적으로 몹시 곤란을 받던 헤세는 자필로 쓴 동화와 시를 애호가들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사례금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남부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자기 작품의 일부를 낭독하기도 하였다. 다시금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림을 받기도 하지만, 작가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날까지도 가장 훌륭한 전기(傳記)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후고 발 Hugo Ball의 저서 『헤르만 헤세, 그의 생애와 작품』이 출판됨으로 인해 강렬했던 생의 권태와 육체적 허탈상태도 극복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의 여류 예술사가 니논 돌빈 Ninon Dolbin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몬타놀라에 은신한 헤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니논과 서신교환을 하고 있었으며, 1927년부터는 동거생활을 해오다가 1931년 11월에 공식적인 세 번째의 결혼을 하였다. 영리하고도 이해심 많은 니논 부인의 따스한 애정과 배려로 결국 헤세는 대신의 아름다운 자연에 침잠하여 시와 소설을 쓰고 수채화를 그리면서 만년의 안정을 찾아 빨간색의 ‘헤세 별장’에서 고요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헤세의 작품은 독일에서 ‘원치 않는 문학’이 되었다. 나치 관청이 헤세의 책을 인쇄하기 위한 종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더 이상 독일에서 출판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작가의 출판업자 수르캄프와 합의하여 1942년부터는 취리히에 있는 프레츠와 바스무트 사(社)가 『헤세 전집』의 출판을 계속하였다.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다시 독일의 수르캄프 출판사에서 그의 책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헤세의 작가적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헤세는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 괴테 문학상, 쉴러 문학상, 라아베 문학상, 독일 서적협회 평화상 등을 비롯하여 1946년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베른 대학으로부터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

향인 칼브 시(市)와 만년의 은거지 몬타놀라의 명예시민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치에 의해 박해받던 헤세의 작품들이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현시대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게 되자 독일에서도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값진 독서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의 문학이 독일민족에게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미 1962년 8월 9일 아침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헤세는 인생 여정에서의 고독과 고뇌에 찬 방향을 끝내고 성(聖) 아본디오 묘지에 누운 부인과 나란히 잠들어 있다.

4. 초기 작품의 낭만성

현실 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무한한 창공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헤세는 고뇌에 가득 찬 끝없는 방랑을 하였다. 초기 작품에 있어서는 노발리스Novalis, 티크Ludwig Tieck 등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신 낭만주의적 색채가 깃든 수법으로 후기 작품들의 근본적 모티프를 선취하면서 현실과 비현실 간의 교체작용을 보여 주고, 또한 자아와 전 우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전일사상을 직관적으로 예감하면서 자연과 신과 인간의 단일성을 서술하였다.

최초의 산문집 『한밤중 후의 한 시간』과 자신의 초기 발전과정을 서술한 『헤르만 라우셔』보다는 1904년의 장편 『페터 카멘친트』로써 헤세는 비로소 작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는 감상적인 스위스의 소년 페터의 이야기로, 그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 마을에서 산과 호수, 폭풍과 태양과 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름에 몰두한 채 자라난다. 세상과 문명에 참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지만, 현실세계로부터는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삶에 지친 채 세상을 방랑하다가 결국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다. 여기에서 다시 ‘자연의 한 조각’이 되어 조용한 시골에서 시인 생활을 하게 된다. 즐거리와 인물이 별로 없는 이 작품은 산문으로 쓰여진 서정시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소설이다.

1906년의 『수레바퀴 밑에서』는 무엇보다 자서전적인 요소를 지닌 작품으로 그 시대의 ‘학생 비극’의 대열에 속하고 있는 바, 이는 편협한 아버지와 몇몇 선생님의 야만적인 명예욕으로 인해 국민학생인 주인공 한스가 삶에 지쳐 결국은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학교에서의 예외자들을 『이편에서』, 『이웃 사람들』, 『우회로』 등에서도 서

술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산과 구름과 시냇물, 여름과 밤하늘에 외로운 동경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 현실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이다. 음악가 소설인 『게르트루드』와 화가 소설인 『로스할데』의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부인과 마주 서 있기는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인간상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세상을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체험하는 자연아(自然兒)들로서 현실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예술 속에서만 그들의 도피처와 천국적인 조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도 여행의 결과로 『인도에서』란 기행문집을 발표한 작가는 이어서 친구도 애인도 없는 방랑아 생활을 그린 『크눌프』(1915)를 완성시킨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랑스런 세상을 떠돌아 다니며 자연을 노래하는 그는 오로지 범신론적인 자연과 하나임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신의 목소리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스스로가 신의 한 조각이고 그의 자식이며 형제라고 여기기에 주인공 크눌프는 인간으로서의 여정이 끝났을 때에도 하늘 아래 눈이불을 덮고 신의 이름으로 고향과도 같은 자연 속으로 쾌적하게 죽어간다. 이로써 작가는 자연과 신과 인간의 우주적인 단일성을 이 소설에서도 초기의 모든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낭만적인 수법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5. 아브락사스와 강물

앞서 언급했듯이 제 1차 세계대전이란 세계사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헤세는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 정신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한동안 창작활동을 중단한 채 70여 회에 걸친 심리분석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상과 창작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형성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사춘기를 주요 테마로 삼은 심리소설 『데미안』이다.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이 작품에서 헤세는 이전의 ‘낭만적인 작품(作風)’을 지양하고 완전히 새로운 필법으로 분석심리학에서 나온 변화된 사상과 철학을 서술하고 있으니, 즉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하나의 단일성에 속하는 밝고 어두운 두 개의 세계와 그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악마신 아브락사스, 남-녀와 어머니-애인의 요소를 한 몸에 지닌 에바 부인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10살 때에 벌써 인간생활의 이중성을 예감하는데, 하나는 도덕적이고 사랑에 가득 찬 양친의 밝은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유혹적이고 공포에 가득 찬 골목의 어두운 세계이다. 악의없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크로머라는 조약한 녀석의 손아귀에 빠져들어 괴로움에 시달리며 이중생활을 해가는 주인공을 구해주는 것은 침잠된 단일적 세계의 사자(使者)인 데미안이다. 그는 카인의 표적을 저주의 표적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이 강한 선택된 자들의 표적으로 풀이하며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으로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

즉 세계란 선과 악이 함께일 때에야 비로소 하나가 되며, 인생의 양면성을 단일성으로 포용하고 두 개의 세계를 똑같이 신성하게 간주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를 상징하는 아브락사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이며,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모든 양극성을, 모든 대립적인 것을 동시에 창조하는 아브락사스는 인생과 세계의 대립적 다양성을 포괄하여 하나로 합일시키는 새로운 신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를 전체로서 긍정하고 숭배하며 커다란 단일화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의 그에게 기도한다.

정신분석과 더불어 헤세는 또한 인도의 지혜에 접하고 심취되어 그 자신 직접 요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바가바드 기타』 등 인도의 고전을 탐독하고 그 사상이 것들인 『싯다르타』(1922)와 같은 작품을 남겼다. 질식할 듯한 서구문명으로부터 도피하여 인도를 여행한 후 헤세는 현대의 문명화된 인도에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베단타 철학과 완전히 이원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삼카 철학에도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의 시(詩)’라는 부제를 가진 종교적인 성장소설 『싯다르타』에서 작가는 ‘우주의 전체성에 대한 예감’과 ‘모든 인생의 비밀스런 단일성에 대한 예감’을 갖게 되며, 마지막에는 현상계를 초월한 순수한 존재에 대한 초월적인 견해에 도달하여 “전체를 하나에서, 하나를 전체에서”라는 전일사상(全一思想)을 투시하게 된다. 주인공 싯다르타는 강물에서 이러한 전일사상을 각성하게 되는데, 이 강물은 바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고한 상징이 되어 있다. 방랑의 목적지에 도달한 싯다르타에게는 정신과 자연, 사상과 육욕(肉慾), 선과 악의 대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단일성의 한 극(極)으로서 똑같이 긍정되는 것이다.

6. 대립적인 합일성

후기 현대인들의 성서가 되어 있는 『황야의 이리』(1927)에서도 작가는 세계와 인생의 무수한 대립성이 지양된 ‘불사자(不死者)들의 단일성’에 도달하려는 이리 인간의 고뇌에 가득 찬 혼돈적 이중생활을 묘사하였다. 너무나도 고독하게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존재에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주인공 하리 할러, 그는 동물적 충동과 인간적 정신 사이의 운명적인 투쟁 속에서 세계대전 직후의 병든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의 존재에 대한 서광이 비치는 가능성을 찾으려 시도한다. 처음에는 자살을 함으로써 고뇌에 가득 찬 삶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는 친구들이 이끄는 대로 어느 한 소박한 나이트 클럽에서 단조로운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미친 듯 몸부림치는 춤을 추고, 육욕과 아편의 도취 속에 빠졌다가 ‘마술 극장’ 안에서 자신으로의 깊은 인식을 하게 되며 팽팽했던 정신적 긴장을 해소시킨다. 하리는 내적 불안이나 외적 환멸에도 불구하고 마술적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생을 즐기고 웃음을 얻고 드디어는 이성을 되찾으며, 세계와 인생의 무수한 대립성이 지양된 불사자들의 단일성에 도달하게 된다.

『황야의 이리』에서는 정신과 자연의 양극적 대립성이 하나의 인간 하리에 깃들 어 있었는데, 헤세는 1930년의 장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는 이를 두 인간, 즉 정신에 봉사하는 성직자 나르치스와 정열적으로 예술과 인생에 몰두하여 충동과 자연을 구현하는 골드문트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환상적인 중세의 수도원에서 두 주인공 간에 우정이 싹트며 처음엔 정신인(精神人) 나르치스가 지도적 역할을 한다. 친구의 도움으로 망각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되찾게 된 자연인(自然人) 골드문트는 계속적으로 어머니 꿈을 꾸며 ‘영원의 모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마돈나, 애인과 예보는 모두가 하나이며, 골드문트를 에워싸고 있는 무상한 모성계에서는 모든 것이 밝고 자비로운 동시에 모든 것이 어둡고 무시 무시하다. 수많은 여인들에게서 영원히 모성적인 것을 맞보면서 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여인에게서 저 여인에게로 방랑을 계속한다. 그러나 골드문트는 영원한 모상(母像) 속에서 양극성의 지양과 완전한 조화를 투시하고 경험하며, 태초의 어머니 에바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바는 모든 여인인 동시에 삶과 행복, 사랑과 쾌락, 기아와 갈증, 충동과 공포와 죽음인 것이다.

자연인으로 사랑하며 살아온 골드문트는 영원의 모상과 합일하여 신적인 조화 속에서 죽어가는 반면에, 정신과 이성과 금욕의 대변자인 나르치스는 마지막 인식

으로의 길이란 부성(父性)적인 정신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골드문트의 인생과 같이 자연적이며 모성적인 길, 예술적인 창작의 길 등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운명지워진 길이란 정신적인 길이며, 이 길을 그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사이에는 적대관계나 이원론은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보충하고 있으며, 그들 둘이 합쳐서야 비로소 이상적 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하나의 단일성에 함께 속하는 양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채색된 유리알의 상징

동양적 사상이 깃든 『동방순례(東方巡禮)』(1932)에서도 헤세는 그가 이해한 대로의 전일성에 대한 상징적 안목을 서술하고 있으니, 주인공 레오의 내면에서는 자연과 정신의 모든 힘이 조화를 이루며 윤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주위세계와 흐르는 듯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알며,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레오를 비롯한 모든 동방순례자들에게 헌납된 만년의 대작 『유리알 윤희』(1943)에서도 작가는 모든 주요 작품의 밑바닥을 흐르는 근본 테마, 즉 생(生)의 양극성과 모든 대립 저편에서 작용하는 전일성의 투시와 경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 이해를 위한 입문」으로 시작되는 『유리알 윤희』는 윤희의 명인이며 주인공인 크네히트의 전기 12장과 그가 남긴 11편의 시와 3편의 이력서, 즉 「기우사」, 「고해사」 그리고 「인도의 이력서」로 구성되었다. 헤세는 이 장편의 중심부, 즉 크네히트의 전기를 “24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는 정신과 세상, 특히 정신과 자연의 양극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예술과 학문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영역에 대한 전일성의 상징인” 채색된 유리알을 가지고 행하는 윤희의 이념으로 자신의 사상을 묘사하였다. 즉 주인공 크네히트와 그의 대적자 테시노리, 이상국인 카스탈리엔과 자연국인 현실세계, 그리고 고도의 전일적 조화를 나타내는 유리알 윤희로써 우주의 온갖 대립성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전일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 속에 어떻게든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전일적인 유리알 윤희의 이념은 사실상 거의 서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는 단지 이 윤희와 그의 심오한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사하게나마 이해하고 관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모든 대립을 넘어선 전일성으로 통하는 길로서 긍정적이며 인내심이 강한 전애적(全愛的)인 ‘사랑’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랑에 도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8. 인간 헤세와 그의 문학정신

세 살 때에 벌써 중국, 아프리카, 인도의 그림을 구분할 수 있었던 헤세는 서양의 신비적이며 기독교적인 경건주의에서 출발하면서, 일생 동안 인도와 중국사상의 동양적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 고향’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한 그는 운명적으로 동양과 서양, 자연과 정신, 예술가와 사상가, 은둔자와 속세인, 모성과 부성의 수많은 대립 사이에 흔들거리는 일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자신의 흔들거리는 인생에서는 물론 시적인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양극 사이에 긴장시킨다. 인간으로서의 헤세는 『황야의 이리』에서 스스로 얘기하듯 “어떤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형성체가 아니라 하나의 시도이며 변화이다. 그는 바로 자연과 정신 사이에 놓여진 좁고 위험한 다리이다. 가장 내면적인 운명은 그를 정신으로, 신으로 몰아대고 가장 절실한 동경은 그를 자연으로, 어머니로 이끌어 간다. 이 두 개의 힘 사이에서 그의 인생은 불안에 떨면서 흔들거린다.”

신비스런 감정과 신앙성에서 헤세는 일찍부터 인생의 날카로운 대립성의 극복에 대한 가능성을 예감한다. 훗날에 고대 중국의 정신세계에 접함으로써 양극성과 단일성에 대한 태고적 관념을 인식하게 되고, 드디어는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동양의 지혜에서 그 자신의 예감에 대한 확증을 발견한다. 즉 양극적 대립성을 내포한 긍정적이며 조화적인 단일사상, 모든 어둡고 밝은 면을 포함한 전체적 인생에 대한 이념을 헤세는 도교적이며 선(禪)불교적으로 심광 같은 내면화에 의해 경험하며, 특히 『데미안』 이후의 모든 작품에서 여러 가지 동양적 요소와 소재, 인물 및 동양적인 비유 언어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 전체에서 볼 때, 동양정신에서처럼 모든 것이 긍정되고 모든 것은 하나이며 똑같이 좋고 신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커다란 단일(單一)인 태극에서 음과 양은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양극이기 때문이다. 바로 전일적이며 조화적인 단일사상이란 문학정신 속에서 헤

르만 헤세라는 인간과 그의 인생의 운명적인 균열도 조화를 이루며 지양될 수 있었던 것이다. □

헤르만 헤세 연보

- 1877년 7월 2일 뷔르템베르크 주의 소도시 칼브에서 요하네스 헤세와 그의 부인 마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남. 남매로는 누이 아델레, 동생 파울, 게르트루트, 마리, 그리고 한스가 있음.
- 1881~86년 스위스의 바젤에 거주하며 아버지가 스위스 국적을 취득함(이전에는 러시아 국적이었음).
- 1886~89년 고향 칼브로 돌아와 실과학교에 다님.
- 1890~91년 괴팅겐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님. 뷔르템베르크의 국적을 취득함.
- 1891~92년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나 7개월 후에 도망쳐 나옴.
- 1892년 바트 볼에 있는 블롬하르트 목사의 병원에서 치료받음. 6월에 짝사랑으로 인한 자살 기도. 슈테텐 정신병원에 체재.
- 1892~93년 칸슈타트 김나지움에 다님. 중등학교 자격 시험을 치른 후 학업 중단.
- 1894~95년 칼브에 있는 페로 탐시계 공장에서 실습.
- 1895~98년 튀빙겐의 헤켄하우어 서점에서 점원 및 서적 분류 조수로 일함.
- 1899년 처녀 시집 『낭만의 노래』와 산문집 『한밤중 후의 한 시간』 출간.
- 1899~1903년 바젤의 라이히 서점과 베텐빌 고서점에 근무. 《스위스 일반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와 서평을 쓰기 시작함.
- 1901년 첫번째 이탈리아 여행. 『헤르만 라우서의 유작과 시』 출간.
- 1902년 어머니에게 헌납한 『시집』 출간. 그러나 출간 직전에 어머니 사망.
- 1903년 서점에서 근무를 포기하고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함. 『페터 카멘친트』 원고를 끝내고 베를린의 S. 피셔 출판사로 송부.
- 1904년 『페터 카멘친트』 출간. 마리아 베르놀리와 결혼하여 보덴 호수 근방의 가이엔호펜으로 이주. 자유작가로 생활하며 여러 신문과 잡지에도 협력함. 전기적 연구서 『보카치오』와 『프란츠 폰 아쉴시』 출간.
- 1905년 첫아들 브루노 출생.

- 1906년 장편 『수레바퀴 밑에서』 출간.
- 1907년 단편집 『이편에서』 출간. 가이엔호펜에 자기 집을 짓고 이사.
- 1908년 단편집 『이웃 사람들』 출간.
- 1909년 둘째 아들 하이너 출생. 취리히, 독일, 오스트리아로 강연 여행.
- 1910년 장편 『게르트루트』 출간.
- 1911년 시집 『도중에서』 출간. 셋째 아들 마르틴 출생. 화가인 한스 스투르체 네기와 인도 여행.
- 1912년 단편집 『우회로』 출간. 독일을 떠나 스위스의 베른으로 이주.
- 1913년 여행기 『인도에서』 출간.
- 1914년 장편소설 『로스할데』 출간. 전쟁이 시작되자 자원 입대하려 했으나 군 무 불능의 판정을 받음. 베른의 독일 포로 후생 사업소에서 근무.
- 1914~19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신문과 잡지에 수많은 정치 기사와 논문 및 공개 서한을 출간.
- 1915년 단편집 『길가에서』와 소설 『크눌프』, 시집 『고독한 자의 음악』 출간.
- 1916년 단편 『청춘은 아름다워라』 출간. 아버지 사망. 부인과 아들 마르틴의 발병. 정신질환으로 인해 루체른 근방의 손마트에서 C. G. 융의 제자 J. B. 랑 박사에게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음.
- 1919년 처자와 헤어져서 테센 주의 몬타놀라로 가 카무치 별장에 거주. 장편 『데미안』을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출간. 『데미안』으로 폰타네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지만 그 상이 신인을 위한 것이므로 자기 이름을 폭로한 후 되돌려 줌. 동시에 『동화집』, 단편집 『작은 정원』, 정치적 팸플렛 『차라투스트라의 복귀』 출간.
- 1919~22년 R. 볼테레크와 공동으로 《생명의 절규》 지 발간.
- 1920년 『화가의 시』, 3편의 단편을 모은 『클링소르의 마지막 여름』 그리고 여행 소설 『방랑』 출간.
- 1921년 『혼독 속으로의 조망』 출간. 『시선집』, 『테센에서의 수채화 11편』 출간. 취리히 근방의 퀴스나하트에서 C. G. 융으로부터 심리분석을 받음.
- 1922년 ‘인도의 시’란 부제가 붙은 『싯다르타』 출간.
- 1923년 첫번째 부인과 이혼. 취리히 근방의 바덴에서 요양을 시작하여, 1952년까지 매년 말이면 그곳에 체재.

- 1924년 스위스 국적을 다시 취득함. 스위스 여류 작가 리사 뱅거의 딸인 루트 뱅거와 재혼.
- 1925년 「요양객」 발표. 루트 뱅거에게 바친 사랑의 동화 「픽토르의 변신」 발표. 이해부터 베를린 S. 피셔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된 『헤세 전집』을 출간하기 시작함.
- 1926년 「그림책」 발표. 프러시아 예술 아카데미의 예술 분야 회원으로 선출됨. 여류 예술사가인 니논 돌빈과 사귀.
- 1927년 『뉘른베르크 여행』과 장편소설 『황야의 이리』 출간. 50회 탄생을 기념하여 후고 발이 쓴 『헤세 전기』가 출간됨. 두 번째 부인의 소원에 따라 법적 이혼.
- 1928년 수상집 『관찰』과 시집 『위기』 출간.
- 1929년 시집 『밤의 위안』과 산문 『세계 문학의 도시 목록』 출간.
- 1930년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출간. 단편집 『이편에서』의 증보판 출간. 프러시아 예술 아카데미에서 탈퇴.
- 1931년 체로노비츠의 아우슬랜더가 출신 니논 돌빈과 결혼. 그녀와 함께 보드머가 지어 제공해 준 몬타놀라의 집으로 이주. 『싯다르타』, 『어린이의 영혼』, 『클라인과 바그너』 그리고 『클링소르의 마지막 여름』을 한데 엮은 소설집 『내면으로의 길』 출간, 『유리알 유희』를 집필하기 시작함.
- 1932년 『동방 순례』 출간.
- 1933년 단편집 『작은 세계』 출간. 나치주의와 유대인 박해에 반발.
- 1934년 시선집 『생명의 나무에서』 출간. 페터 수르캄프가 피셔 출판사와 《디노이에 문트샤우》지 인수.
- 1935년 『우화집』 발표. 동생 한스의 자살.
- 1936년 전원시집 『정원에서의 시간』 출간. 고트프리트 쾰러 상 수상.
- 1937년 『회고기』와 『신시집』 그리고 시구로 엮어진 회상기 『불구 소년』 출간.
- 1939~45년 헤세의 작품은 독일에서 ‘원치 않는 문학’이 됨. 나치 관청은 그의 책을 위한 종이를 허락하지 않음. 주르캄프와의 합의하에 단행본으로 된 『헤세 전집』이 취리히에서 계속 출간됨.
- 1942년 최초의 시전집인 『시집』 출간.
- 1943년 만년의 대작 『유리알 유희』를 2권으로 출간.

- 1945년 시선집 『꽃가지』와 장편 프라그멘트인 『베르톨트』 그리고 새로운 단편과 동화를 모은 『꿈의 발자취』 출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규칙적으로 실스 마리아에서 여름을 지냄.
- 1946년 이때부터 다시 헤세의 작품이 독일의 주르캄프 출판사에서 간행됨. 전쟁과 정치에 관한 수상집 『전쟁과 평화』 출간. 프랑크푸르트 시의 괴테 상 수상. 노벨문학상 수상.
- 1947년 베른 대학의 철학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음. 고향인 칼브 시의 명예 시민이 됨.
- 1950년 브라운슈바이크 시의 빌헬름 라베 상 수상.
- 1951년 『후기 산문집』과 『서간집』 출간.
- 1952년 75회 탄생일을 기념하여 6권으로 된 『헤세 전집』 출간.
- 1954년 『헤세-롤랑 서신 교환집』 출간.
- 1955년 독일 서적협회의 평화상 수상, 니논에게 헌납된 후기 산문집 『불제』 출간.
- 1956년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독일 예술 촉진위원회에 헤르만 헤세 상을 창설함.
- 1957년 80회 탄생일에 마르틴 부버가 슈투트가르트에서 「헤르만 헤세의 정신애와 봉사」란 축사를 함. 『헤세 전집』이 7권으로 증보 출간됨.
- 1961년 시선집 『단계』 출간.
- 1962년 몬타놀라의 명예 시민이 됨. 8월 9일 뇌출혈로 몬타놀라에서 별세. 이틀 후에 성(聖) 아본디오 묘지에 안치됨.